

일본 주식시장 활황

By Hon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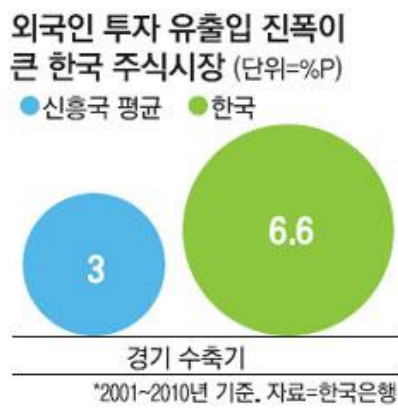
소니가 증권가의 예상을 깨고 8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최근 몇 년간의 변화로 스마트폰이 TV, 노트북과 같은 기존 가전 제품 시장까지 잠식했기 때문입니다. 스마트 폰 시장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소니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소니는 앞으로 삼성과 애플, 블랙베리 등 기존 경쟁자들과 어떻게 경쟁해야할지 생각해 내야 합니다. 새로운 신제품으로 재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소니는 현재 오히려 엔터테인먼트와 금융 쪽에서 수익을 내는 중입니다. 더군다나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경제 대금을 처리하고 있어 최근 엔화 약세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

+)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쇼크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집계한 평균 이익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거나 크게 뛰어넘는 실제 성적이 발표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소니의 경우는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(삼성의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죠) 이와 같은 현상은 장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
관련기사 : [Wall Street Journal](#)

외국계 자본유출입 속도 빨간불

By Choi



외국의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규모가 커지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IMF 때 외국환 거래를 자유롭게 인정 한 후 한국의 양적 개방도(+)가 미국 일본 다음으로 3 위 수준에 등극했습니다. 이렇게 자본의 유입과 유출의 규모와 속도가 빨라지면 급격한 환율 변동의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외국 투기 세력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특히 최근 각 국에 양적완화로 풀린 핫머니가 국내로 유입되어 환란이 발생할 경우 '외국계 먹튀'가 또 나올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.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인 규제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

+) 양적개방도는 순대외투자금액을 GDP 로 나눈 수치입니다. 즉 외국 자본의 투자 금액을 국가경제규모인 GDP 로 나눠서 다른 국가와의 규모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입니다. 이 수치가 크다는 것은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많은 외국 자본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

관련기사 : [매일경제](#)

2012년 국세수입 감소

By Chung



2012년 국세수입은 계획보다 약 3조 덜 걷힌 282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이는 전년도(203조원)보다 5.5% 증가했지만 예산보다는 미달한 것으로 세입이 예산에 미달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. 이러한 국세수입 감소의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. 부가가치세의 경우 민간소비 및 수입이 둔화되었기에 감소하였고 관세 감소는 수입 둔화로 인한 수입액 감소 그리고 자유무역협정(FTA)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도 1000억원 줄어들어 적자로 전환하였는데, 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.

+) 세계잉여금이란,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으로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액수를 합한 금액입니다.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하지만, 세계잉여금만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

관련기사 : [BizChosun](#)